

광주상의 “대기업 유치·청년 유출 등 현안 해결 앞장서야”

통합특별시장 후보자에 ‘10대 정책’ 제안 산업·에너지·교통·문화 각 분야비전 제시 민중·국힘 등 주요 정당후보에 전달 예정

광주상공회의소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자들에게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에게 바라는 지역발전 10대 정책’을 주요 정당 후보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광주상의 최근 실시한 지역 기업인 대상의 견조사에서 ▲대기업 앵커기업 부재 ▲청년 인재 유출 ▲에너지 비용 부담 ▲문화 정주 인프라 부족 등이 지역 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반영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제안 내용을 구성했다.

광주상의는 우선 ‘청년이 모여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초광역 성장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광주권·동부권·서부권을 통합특별시의 3대 성장축으로 설정하고, 약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을 기업 유치, 관광 인프라 확충, 미래산업 기반 조성 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하지는 구상이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저비용 공급체계 구축 및 송배전망 확충’을 제안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우선 활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반영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확대 지정, 송배전망 적기 확충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주문했다. 군공항 이전은 전남광주 상생발전의 핵심 현안인 만큼 통합 이후 행정체계 변화와 관계없이 후보자 확정, 주민 협의, 후속 개발계획 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 추진체계를 갖춰

야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군공항 이전 이후 확보되는 대규모 부지를 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대기업 유치’ 전략도 제안했다. 광주상의는 해당 부지가 통합특별시장 미래 100년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AI, 미래차, 반도체 기업 등을 유치할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력·세제·규제 특례 등 맞춤형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 테마파크 유치 ▲무등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광주-나주 광역철도 재추진과 광주-화순 노선 신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국회도서관 광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등 3대 국립문화시설 유치 ▲지역 특성을 고려한 2차 공공기관 지역 유치 등을 제안했다.

광주상의는 이번 주부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등 주요 정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측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임재만 기자



씨월드고속훼리, 신규 카페리 ‘퀸메리호’ 30일 첫 출항

목포-제주 노선 중심 운항 해상 여행 새 기준점 제시

씨월드고속훼리가 신규 카페리 ‘퀸메리호’의 공개 행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오후 2시 목포에서 첫 출항에 나선다.

선박 공개 이후 본격적인 운항에 돌입하는 이번 취항은 남도와 제주를 잇는 해상 교통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퀸메리호는 지난 27일 목포 삼학부두와 28일 제주항에서 각각 공개 행사를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초기에는 목포-제주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하며, 향후 진도-제주(애월) 노선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과 관광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릴 계획이다.

‘퀸메리호’라는 이름은 단순한 선박명을 넘어 씨월드고속훼리의 브랜드 역사와 상징성을 담고 있다.

2008년 첫 항해를 시작으로 세 차례 계승되며 고객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자리 잡았으며, 2026년 네 번째 선박으로 새롭게 출항해 그 명맥을 이어간다.

이번 선박은 그간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의 신뢰를 계승하면서도 한층 진화된 서비스와 공간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건조된 퀸메리호는 길이 143m, 폭 22m, 깊이 13.8m, 국제톤수 1만4천919t 규모다. 최대 766명의 여객과 승용차 기준 약 270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으며, 최고 속력은 21.5노트에 달한다.

특히 기존과 차별화된 운항 시간대가 눈길을

끈다. 목포에서는 오후 2시, 제주에서는 오전 7시에 출항하는 일정으로, 기존의 새벽·오전 중심 운항에서 벗어나 보다 여유롭고 효율적인 여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일정 선택의 폭을 넓히고 체류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내 서비스 역시 대폭 강화됐다. VIP 및 스위트 객실을 비롯해 온돌형과 침대형 패밀리 객실, 우등석과 일반석, 파노라마 창을 갖춘 단체 전용 공간 등 다양한 좌석 구성을 통해 이용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 수요 증가에 대응해 펫 VIP 객실과 펫 전용 좌석을 도입하고, 반려견 성향에 맞춘 ‘펫 MBTI 객실’을 업계 최초로 선보이며 차별화를 꾀했다. 펫 VIP 객실 이용객에게는 펫 유모차와 간식 키트도 제공된다.

이중훈 씨월드고속훼리 대표는 “퀸메리호는 프라이빗한 휴식과 펫 프렌들리 환경에 최적화된 선박으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바다 위에서 여행이 시작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서비스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해상 여행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씨월드고속훼리는 퀸메리호 취항과 함께 남도 시그니처, 템플스테이, 야구 원정대 등 관광·힐링·체험을 결합한 다양한 테마형 여행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또한 퀸메리 승선 체험단과 SNS 서포터즈 ‘SEA WORLD CREW 1기’ 모집을 마무리했으며, 이들은 향후 제주항로를 배경으로 콘텐츠 제작과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기존과 차별화된 운항 시간대가 눈길을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은행,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 개최

지역 밀착형 콘텐츠로 고객 접점 확대

광주은행은 지난 27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된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선발된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며, 광주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청년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발된 홍보대사에게는 매일 소정의 활동비와 단체복이 지원되며,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 팀과 개인을 선정해 별도의 포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홍보대사 임명장 수여와 함께 각오와 포부를 담은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젊은 에너지와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갈 것

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 맞춤형 브랜드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글로벌 금융 소통 ▲지역 내 소외계층 대상 ESG사회공헌활동 ▲메세나(문화·예술·스포츠) 연계 활동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 활동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내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프로젝트

를 수행할 계획이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대학생 홍보대사는 단순한 홍보활동을 넘어 광주은행이 지역과 함께 걸어가는 가치를 가장 가까이에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진정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광주은행의 미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2008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50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며 광주·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생 대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재만 기자



코스피 ‘파죽지세’...7천피 고지 눈앞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7천 피 시대’를 앞두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전장보다 139.40포인트(2.15%) 오른 6,615.03에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장중 한때 6,650선까지 치솟았고,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넘어섰다.

특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을 합산한 전체 시가총액 역시 6천조원을 넘어서며 한국 자본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날 코스피 상승의 주역은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이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8천994원, 1조1천14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특히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서며 지수에 상당 압력을 가했다. /임재만 기자·연합뉴스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대리점 완전독점 대동강맥주 공급업체 공고 모집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아시아 최고의 라거!!!
국내 최초 (북한)대동강 맥주가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엽니다!

- 대동강 유역의 맑은 물과 엄선된 보리로 완성된 깊은 풍미
- 마케팅 없이도 고객이 먼저 찾는 이름
- 지역별 한정 대리점 모집을 통한 독점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 불황에도 대동강 맥주는 출시전부터 예약문의가 폭주하는 검증된 아이템입니다

모집대상: 주류유통 유경험자 및 신규 사업 희망자(주류 면허 없어도 됨)
지원내용: 영업권역보장 홍보물지원, 광고지원
특전: 초기 계약 시 계약금 최소화

성공은 타이밍입니다! 대동강 맥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각 시·군 선착순 모집★ 문의 | 자연과 생명 연구소 080-374-5046